

한국사회에서 '진보'의 의미

김통준

(편집위원장)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IMF 사태를 맞고 있다. 빚 독촉에 몰려 일가가 음독 자살하고, 중소기업 사장이 투신 자살하며, 어제까지 회사의 어엿한 중견 간부이던 사람이 즐지에 집 잃고 마누라 잃고 서울역의 무숙자(homeless)가 되고, 택시 운전수가 강도로 돌변하며, 버려진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울고 있다. '소비의 사회,' '영상세대의 등장,' '정보통신혁명'의 구호가 들린지가 어제인데 오늘은 생존을 위한 일차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음과 고통이, 한국전쟁 직후에나 볼 수 있었던 결식아동들의 썩은 눈동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밥 투정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뼈만 앙상히 남은 북한의 어린이들을 보라고 야단치던 한국의 부모들은 이제 고아원에 넘쳐나는 풀 죽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기로에 서 있다. 냉전과 군사적 대결과 그것을 빌미로 한 광기를 청산하고, 북풍 공작의 추악한 내부거래를 종식시키고 민족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양측 모두가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전쟁준비와 상호 적대를 지속시켜야 할 것인가?

어쩌면 이러한 난리통에 책상 앞에서 글을 쓴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다. 정작 위기가 닥치는 순간 직전에도 호루라기 한 번 불지 못하고, 일이 터지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학자들의 신문 칼럼을 읽는 것도 짜증스럽다. 그러나 모두가 절망하며 지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위안을 주는 가객(歌客)이 필요하듯이,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상황의 극복과 대안을 모색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한 사회과학적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 아니 오늘이야말로 사회과학이 정신 차리고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면서 현실 타개책을 제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적잖은 연륜을 쌓아 온 우리 <경제와사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우리가 90년대의 ‘거품’ 속에서 안주해 온 것은 아니었는가, 요설(饒舌)과 참 담론을 구별하여 독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는 데 과연 용감했는가 하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행적은 후세의 평가에 남겨 두고 이제부터라도 제 역할을 다하는 다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호에 몇 가지 중요한 기획을 하였다. 특집 「우리시대 진보란 무엇인가」는 사회주의의 붕괴와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지적인 방황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정신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여기서 유팔무는 서구에서의 진보사상의 궤적을 더듬고, 사회주의 붕괴의 배경을 추적함으로써 새로운 진보와 진보운동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홍윤기는 단선적 진보관이 가져다준 진보니힐리즘의 위험을 경계하면서 다차원적인 진보의 개념을 모색하고 있다. 강미화는 독일 68운동의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제기된 진보운동의 지평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것이 한국에게는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보여주고 있다. 강정인은 앞의 논의와는 거꾸로 한국 보수주의의 혁신과 자기정립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진보의 길을 묻고 있다.

집중기획 「IMF와 한국사회, 한국의 사회과학」은 당면한 초미의 관심사인 IMF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한국의 사회과학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주로 다루고 있다. 김상조는 국제경제질서

와 IMF의 결성 배경, 그것의 활동 등을 소개하면서 IMF 체제하의 한국 경제의 활로를 제시하고 있다. 손호철은 우리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게 된 원인을 간단히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한국 사회과학이 어떻게 한국의 당면 정치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가를 비판한다. 김동춘 역시 한국의 지식인들이 IMF 사태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쟁점 「15대 대선」에 실린 정영태와 정대화의 논문은 50년만에 이루어진 한국 정권교체와 김대중 정권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전자는 김대중 정권의 성격을 그 언술과 실제 정치과정을 교차시킴으로써 분석하고 있고, 후자는 그 성격을 규정함과 동시에 진보세력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번 호의 연구논문으로는 정승국의 논문 한 편만이 실렸다. 특집과 기획물이 많은 지면을 차지한 결과로서 다른 투고논문들은 다음호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경제와사회> 역시 예정보다 발간이 늦어졌다. 이 점 독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오늘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아픈 부분을 본격적으로 건드려 사회과학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을 약속드린다.